

특별기획

농협 익산·여산농협협동조합 등 휴가철 깨끗한 마을 만들기 운동

농협 익산지부, 여산농협협동조합 및 여산면 농가주부모임은 지난 15일 농협 임직원, 여산면농가주부모임 회원 및 여산수은마을 주민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익산반내 농촌체험 휴양마을인 수은마을 일대에서 여름휴가철 맞이 깨끗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대비 도시민의 여름휴가 수요를 농촌마을로 유도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서 농촌체험마을 주변 폐휴지, 폐비닐 수거, 하천 쓰레기 줍기 및 방역활동 등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농협 임직원들과 여산면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즐겁게 일했다.

농협 익산지부 송기무 지부장은 "전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익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깨끗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했다.

익산=정왕원기자

군산야행 초등생 문화재해설사모집

오는 8월 13일부터 14까지 진행되는 '군산야행(靜山夜行)' 행사 기간 동안 군산시는 관공객을 위해 초등학생들이 직접 문화재 해설사로 활약한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오는 22일까지 구군산세관 본관 외 5개소 문화재 해설을 담당할 '초등학생 문화재 해설사'를 모집한다.

'초등학생 문화재 해설사'는 아이들 스스로가 내 고장의 문화재를 이해하고 가꾸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초등학생 4~6학년생을 대상으로 20명을 모집한다.

초등학생 문화재 해설사로 선정된 학생들은 군산여자고등학교 역사동아리(은고자신)와 군산제일고등학교 역사동아리(국향) 학생들과 함께 문화재에 배처배 군산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아이들의 시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 여산면 꼬꼬뽕푸드 지역아동센터에 닭 1,200마리 전달

익산시 여산면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꼬꼬뽕푸드(대표 장홍도)가 최근 서강지역아동센터에서 익산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산계용 닭 1,200마리를 전달했다.

장홍도 대표는 "아이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사랑을 나누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혁중 연합회장은 "경기 침체로 기업경영이 어려운 시기인데도 아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7개 지역아동센터에 잘 전달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 꼬꼬뽕푸드(대표 장홍도)는 연합회와 2014년 협약을 맺고 해마다 지역아동센터에 사랑의 닭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익산=정왕원기자

군산시,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만들기 시범 운영 실시

군산시는 근대역사박물관, 경일동 철길마을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만들기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시는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화장실 휴지통을 치워 위생상의 문제해결은 물론 미관상 좋지 않았던 화장실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휴지통 없는 쾌적한 화장실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공중화장실에서 사용한 화장지는 변기 속에 투입해 내 집 화장실처럼 깨끗하게 이용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달부터 시청 청사 내 휴지통 없는 화장실 시범운영을 실시해 직원 및 시민의 인식변화 등 좋은 반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 롯데아울렛 반대대책위 또 다른 쇼핑몰 건립 요구 '파문'

지역경제 상생 담보로 대책위 "잇속 쟁기나선것 아니냐" 비난

군산롯데아울렛 입점을 위한 상생협력방안(비) 논의 중인 가운데 군산롯데복합쇼핑몰입점지대책위원회(위원장 임대령)가 수백억에 달하는 또 다른 쇼핑몰 건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쇼핑몰을 건립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군산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롯데아울렛 반대대책위 측은 군산시와 롯데쇼핑, 페이퍼코리아 측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지역협력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군산패션협동조합(조합장 임대령) 명의로 제시된 지역협력 상생방안에 따르면, 페이퍼코리아가 상업용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롯데쇼핑 측이 이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1만9,000㎡ 규모의 쇼핑몰을 건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쇼핑몰의 각 층별 용도는 ▲1·2층 협동조합원 운영 소매 몰 구성(7,600㎡) ▲3층 청년몰(3,800㎡) ▲4층 식당가(3,800㎡) ▲5층은 상인 회의실(3,800㎡)로 사용하겠다는 것.

대책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협력 상생방안'을 지난달 21일 서울 상경 집회당시 롯데쇼핑 측에 전달했으며, 이후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측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건물과 롯데아울렛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건물을 대형 쇼핑몰과 연결된 또 다른 쇼핑몰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경우 최소 300억원(부지 100억, 건축비 200억)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페이퍼코리아와 롯데쇼핑 측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현재 군산시의 중재로 당초 5,280㎡에서 2,640㎡로 축소 제시된 상태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패션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상인과 시민들은 지역경제 상생을 담보로 롯데아울렛 대책위가 잇속 쟁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나온중에서 상가를 운영 중인 이모(38·남)씨는 "롯데아울렛 대책위 일부 상인들이 패션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이를 앞세워 지역상생방안이라는 명분으로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또 다른 상권에 공짜로 입성하려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 박모(42·여)씨는 "앞에서는 소상공인 피해와 지역경제파탄을 운운하면서 뒤로는 자신들의 잇속만 챙

기겠다는 것으로 이는 군산시민을 우롱한 처사이다"고 비난했다.

이를 두고 롯데아울렛 반대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반대위 측 한 관계자는 "협의에는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상생방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에 알게 됐다"며 "이 또한 군산시에서 먼저 제시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위원장 겸 패션협동조합장 임대령 씨는 "이 내용은 반대위에서 군산시, 롯데쇼핑, 페이퍼코리아에 제시한 지역상생방안의 포괄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며 "위치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산시 관계자는 "반대위 제시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당사자 간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패션협동조합은 롯데아울렛 반대대책위를 주축으로 아울렛 입점으로 직접 손해를 입는 일부 소상공인들이 모여 지난해 8월께 설립됐으며, 현재 150명의 소상공인이 가입해 있다.

군산=문정근기자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자전거 대여소 '인기'

주말 교통체증 자전거 이용 빠르고 안전하게 섬 전체 여행할 수 있어 큰 호응

군산에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 개통에 맞춰 운영 중인 자전거 대여소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일 부분 개통된 고군산연결도로를 이용해 무녀도, 선유도 등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해 주말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차량으로는 고군산도까지 갈 수 없다.

이에 시는 자전거를 이용해 빠르고 안전하게 섬 전체를 여행할 수 있도록 대체교통수단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고군산연결도로 진입부인 명성휴게소 주차장 입구에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까지 여행을 희망하는 관광객은 신시도 입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면 바닷바람을 가르며 선유도 등 아름다운 섬의 비경과 만주봉 산행도 경험할 수 있다.

자전거 대여소에는 성인용 여성용, 청소년용 자전거와 2인용 자전거 등 100대의 자전거를 비치해 운영 중이며, 이용요금은 3시간 3,000원, 1일 5,000원, 자전거 대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또한 자전거 이용 시 고장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호출차량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고군산연결도로 진입로에 위치한 관광안내소에 태양광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고군산연결도로 양면의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는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방통행제를 시행하고 있다.

진행방향은 일방통행 자전거 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진행 방향으로 운행해야 하며,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1열로만 운행해야 한다.

특히,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차도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자전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안전 수칙과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 대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지역자활센터(063-463-9731)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상공회의소 '주요 기관단체장 초청 기업체 간담회' 개최

익산상공회의소(회장최병선)에서는 최근 익산시 남산면에 소재한 (주)하림 본사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소병홍 익산시의회의장 등 지역 기관단체장을 초청해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 등 기업현안에 대한 논의와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주요 기관단체장 초청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 전개 차원에서 기업 방문행사와 겸해서 개최됐으며, 행사는 참석자소개와 인사, 하림의 사업현황에 대한 소개

및 공장 현장 투어후 기업체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번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김성중 익산시장, 김기영 익산시의회의장, 김성용 익산시장, 김기영 익산시의회의장, 김성용 익산시장 등 신규 기관장들과 기업체 대표간 지역 주요 현안과 기업경영 애로사항과 지원방안, 내고장 상품 애용 의견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병선 회장은 "행사준비에 노력해준 (주)하림 이문용 대표이사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새로 부임한 기관단체

장을 초청하여 상공회의소 사업과 기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히고, 우리 지역 기업 제품 애용에 기관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소병홍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최병선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주)하림 이문용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 25명 등 총 40명이 참석했다.

익산=정왕원기자

전북 코레일,속초 기차여행 상품 출시

'포켓몬 GO' 게임 즐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구성

코레일 전북본부(본부장 장영철)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증강현실(AR) 모바일 게임 '포켓몬 GO'의 '포켓몬 출몰이 잦은 강원도 속초'를 하루에 다녀올 수 있는 기차여행 상품을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포켓몬 GO'는 구글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현실 특정 장소에 나타나는 포켓몬 캐릭터를 포획하는 게임으로 여별 때 포켓몬 민화를 보고 자란 어른들에게도 동심을 되찾아주는 매력적인 상품이다. 이번 기차여행 상품은 거리가 너무 멀어 속초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전북의 포켓몬 GO 유저들에게 KTX와 버스를 연계하여 하루에 포켓몬 GO 게임을 즐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구성한 상품이다"고 밝혔다.

익산=정왕원기자



원광대 정보통신공학과 LED+ICT 기술교류회

원광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는 LED+ICT 융합 기술교류회를 지난 16일 서울 파크타워 하우스에서 개최했다. 원광대 링크사업단 지원으로 열린 이번 교류회는 서울 지역에 있는 LED 및 IT 기업 24곳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세미나 및 기업 간 기술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먼저 원광대 박대희 교수가 학교 링크사업단을 소개하고, LED와 융합기술에 대해 발표했으며, TRC 강남영 대표의 러시아 시장 진출 전략, 이화여대 허정림 교수의 '생할 속의 클래식'이 연이어 발표됐다.

발표를 통해 박대희 교수는 원광대 링크사업과 가족회사 참여를 위한 안내에 이어 취업연계 LED 대학원과정 등을 소개하고, 신학협력과 융합기술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남영 대표는 "러시아 시장은 매우 흥미를 갖게 하는 미개척 분야가 많아서 향후 10년을 생각한다면 한국 중소기업들의 진출과 러시아 핵심기술의 융합은 중국 시장보다 더 큰 가능성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재철이디 김다두 대표가 진행한 기업 간 기술교류회에서는 LED 조명 시장의 어려움과 이를 위한 기업들의 융합기술이 필요하다는 것과 LED 시장의 변화는 단순한 유통시장이 아니라 내용이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졌으며, 특히 원광대의 신학협력 및 기술교류와 더불어 학생 취업률 비롯한 현장실습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익산=정왕원기자

군산해경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시범운영

정부가 복속했던 21개의 각종 신고·상담전화번호를 3개 번호로 통합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해양사고는 119, 해양범죄 신고는 112로 통합하는 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경은 2007년에 구축된 해양사고 긴급신고 번호인 122 번호를 단독으로 운용해 왔다.

하지만 기관별 신고번호가 늘면서 혼선이 잦고 정보공유 지연 등의 문제가 도출돼 이번 통합서비스 번호에 포함됐다. 통합서비스는 기존에 15개 기관 21개 번호를 단 3개의 번호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재난은 119, 범죄신고 112, 민원상담은 110번호이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농기센터, "벼 이삭거름 병해충 적기 방제를"

익산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 쌀 생산과 수량 증수를 위해서 이삭거름 사용 및 병해충 예방과 방제를 당부했다.

벼 이삭거름을 주는 시기는 쓰러짐과 수량 및 미질과 관련이 많으므로 적기에 사용해야 한다. 이삭대는 시기가 벼 벚종이나 이앙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이삭거름 주는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하고,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삭거름을 이앙 하순에서 내달 상순까지는 사용해야 한다. 이삭거름 적정 시기는 벼 출수와 후

기 생장에 무척 중요하고, 피해에 따른 도복과 병해충에 큰 영향을 주므로 사용량은 거름준 양, 이앙시기, 논 토양특성 등에 따라 시비량을 가늠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덥고 습한 조건에서는 벚멸구, 흰등멸구, 황령나방 등의 해충과 이도멸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등 병의 발생이 우려된다"며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방과 병 발생 시 적 응약제로 신속한 방제를 당부한다"고 했다.

익산=정왕원 기자